

최고인민검찰원

규정위반 · 리익추구 집행 전문감독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 검찰 기관의 규정위반 타지역 집행과 리익 추구 집행에 대해 사법 전문감독을 실시할 것을 배치했다. 전문감독사업은 11 개 면의 주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방향과 조사 및 시정을 결합하여 ‘네가지 검찰’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 법에 따라 규정위반 타지역 집행과 리익추구 집행 등 두드러진 문제를 감독하고 시정한다.

검찰기관은 규률검사감찰기관, 공안기관, 인민법원, 행정집행기관 등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 공유, 단서 이송, 류사 사건 분석 등 업무 연결 기제를 보완한다.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집행 및 사법의 질과 능률성을 향상시켜 기업 관련 집행 및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전문감독은 기업 관련 형사사건의 감독, 수사 처리를 두드러지게 한다.

법에 따라 기업 관련 형사사건의 립건과 감독, 강제조치에 대한 감독 등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민사경제분쟁을 처리하는 형사수단을 시정하고 기업 관련 ‘미해결 형사사건’을 정리하며 허위 소송 전문감독 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한다. 허위 소송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시정,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처리에 중점을 두고 법에 따라 재판 및 집행 활동에서 기업 재산 불법 조사 및 동

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법에 따라 법률 감독 업무중 발견된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작은 과실 과중 처벌, 중대 과실 경한 처벌, 처벌 대신 관리 등 문제 치리를 추진하고 검찰공익소송으로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반독점 및 반부정당 경쟁 관련 검찰 직무 리행을 강화한다. / 신화넷

사법부 ‘공증 규범화 량질화’ 행동 전개

최근, 사법부는 ‘공증 규범화 량질화’ 행동 전개를 포치했다. 이 행동은 연말까지 지속된다. 이번 행동은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증서 감소 편민’, ‘속도 제고 효과 증가’ 타지역 토대해 공증봉사를 가일층 규범화, 최적화하는데 14 개 면의 38 개 조치로 ‘네가지 최적화, 네가지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게 된다. 이번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증서 감소’, ‘속도 제고’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한다. ‘공증증서 감소 편민, 속도 제고’ 봉사 조치를 가일층 확대, 최적화하고 기업 관련 공증봉사 명단을 제정, 보완하며 주민신분증 공증, 영업허가증 공증 ‘타성간 일괄처리’ 사항을 새로 추가한다. 한가지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심화한다. 유언공증정보 심사 업무를 확실하게 잘하고 온라인 공증봉사를 적극 보급한다. 자원 균형 배치를 추진한다. 공증 업무 범위를 가일층 확대하고

공증기구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증서 발급 봉사 지점의 설치를 규범화하고 봉사자의 질서 있는 류동을 추진한다. 중점군체 봉사를 잘한다. 로인 공증 봉사를 확실하게 잘하고 장애인, 농민 공과 퇴역군인, 군인군속 및 대만동포, 교포 및 교포 가족 등에 대한 봉사 조치를 최적화한다. 신형 업무를 육성, 확대한다. 봉사의 고품질 발전, 신질생산력 발전, 경영환경 최적화 등 중점사업을 둘러싸

고 봉사의 새로운 업종 형태와 새로운 분야를 적극 모색한다. 공증 참여 보조 업무를 심화한다. 인민법원의 공증 참여 사법보조 업무를 더한층 확대하여 검찰기관, 공안 등 부문에 보조성 공증 법률 봉사를 적극 제공한다. 모순분쟁의 예방과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공증 참여 조정 사업 시범의 전개를 추진하고 공증봉사의 농촌(지역사회) 진입을 추진한다. / 신화넷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22 세 류학생 , 보이스피싱에 련루되어 50 일 구금됐다가...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으로 무죄판결에 형사보상금까지

2019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간 중국 류학생 A 씨(22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발견했다. 단순한 상품권 전달 업무로 알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는 기실 보이스피싱조직이 설계한 금융사기였다. A 씨는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50일 동안이나 구속 수감된 데 이어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로부터 A 씨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수년 동안 숨막히는 여러차례의 법정 공방을 거쳐야 했다. A 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립본 사무소 최필재변호사의 변호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고 형사보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 도합 1,120만원(한화, 이하 동임)을 배상받았다. 최필재변호사에 따르면 A 씨가 말은 아르바이트는 겉보기에는 아주

간단했다. 조직원들은 A 씨에게 ‘상품권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으며 매일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이를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A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이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거래되는 금액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그러나 이미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차례 자금 이동을 수행한 후였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A 씨는 한국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용의자로 체포되어 50일 동안 구속되기까지 했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립본사무소 최필재변호사는 A 씨가 보이스피싱조직의 내부 운영 방식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아르바이트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법정에

서 입증했다. 또한 A 씨가 받은 업무 지시가 범죄와 연결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 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구인 사이트의 공고 내용, 보이스피싱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과 보이스피싱조직의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변론했다. 2020년 5월, 한국 의정부지방법원은 A 씨가 사기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금융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1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고 2020년 5월 검찰의 항소와 2021년 11월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최종적으로 한국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2024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 제

19 형사부는 A 씨의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A 씨의 구금 50일에 대한 보상금 750만원과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 보상금 370만원, 총 1,120만원을 보상한다고 결정했으며 A 씨는 형사보상 결정에서 제시한 금액을 이미 전액 배상받았다. 최필재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재한국 외국인 류학생들이 정식 취업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범죄에 련루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국인 류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금융 관련 업무나 익명의 온라인 모집 아르바이트는 피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련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 유경봉기자
연계전화 :13604447151



의료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

국가의료보험국 사회적 감독 호소

최근 국가의료보험국은 위법 공식계정에 인터넷 고발 기능을 개통했다. 광범한 사회기구와 대중들은 온라인에서 보험사기 관련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료해에 따르면 의료보험기금을 사기 탈취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국가의료보험국 위챗 공식계정 하단의 ‘정민소통’(政民互动) 코너에서 ‘의료보험사기 신고’를 클릭, ‘온라인 민원’ 또는 ‘국장 우편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가의료보험국과 재정부가 공동 발표한 <의료보장기금 불법사용 신고 포상방법>에 따르면 의료보장

행정부문은 조건에 부합되는 신고자에게 사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20만원, 최소 200원 이상이다. 지난해 11월, 국가의료보험국은 의료보험기금 사회감독 및 신고 포상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의료보험기금 안전을 수호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상금을 발급했다. 국가의료보험국은 의료보험기금은 대중들의 ‘병원비’이자 ‘생명을 구하는 돈’이며 법을 어기고 기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민대중의 공동리익을 해치는 중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의료보험기금을 사기 탈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신화사

전국 1,429 명 이민관리경찰 변강수비 기념메달 획득

최근, 국가이민관리국 기관 및 소속 각 본소급 단위들이 통일적으로 2025년도 변강수비 기념메달 수여식을 열고 도합 1,429명 변강수비 이민관리경찰들에 국가이민관리기구 변강수비 금, 은, 동 기념메달을 수여했다. <국가이민관리기구 변강수비 기념메달 수여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장자치구 전 구역과 기타 변경 성, 구 3류 이상 간고한 변강지역에서 루계로 만 30년, 20년, 10년을 사업한 편제내 재직 이민관리경찰(3류 이상 간고한 변강지역에서 사업한 적 있는 변강수비 이민관리경찰 포함)에게 각각 금, 은, 동 기념메달을 발급하며 해마다 한 번씩 수여한다. 2022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해당 기념메달은 3차 수여되었는데 해마다 많은 변강수비 이민관리경찰들이 기념메달을 수여받았다. 변강수비 기념메달의 발급은 직책과 사명을 명기하고 국가대사를 마음속에 품으며 변강수비 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도록 광범한 이민관리경찰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높은 열정과 포부를 안고 변강에 뿌리를 내리며 변강을 위해 기여하고 변강에서 공을 세우며 더욱 강한 투지로 변강의 장구한 안녕과 번영, 안정을 결연히 수호하고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롭고 더욱 큰 기여를 하게 했다. / 신화사

화룡 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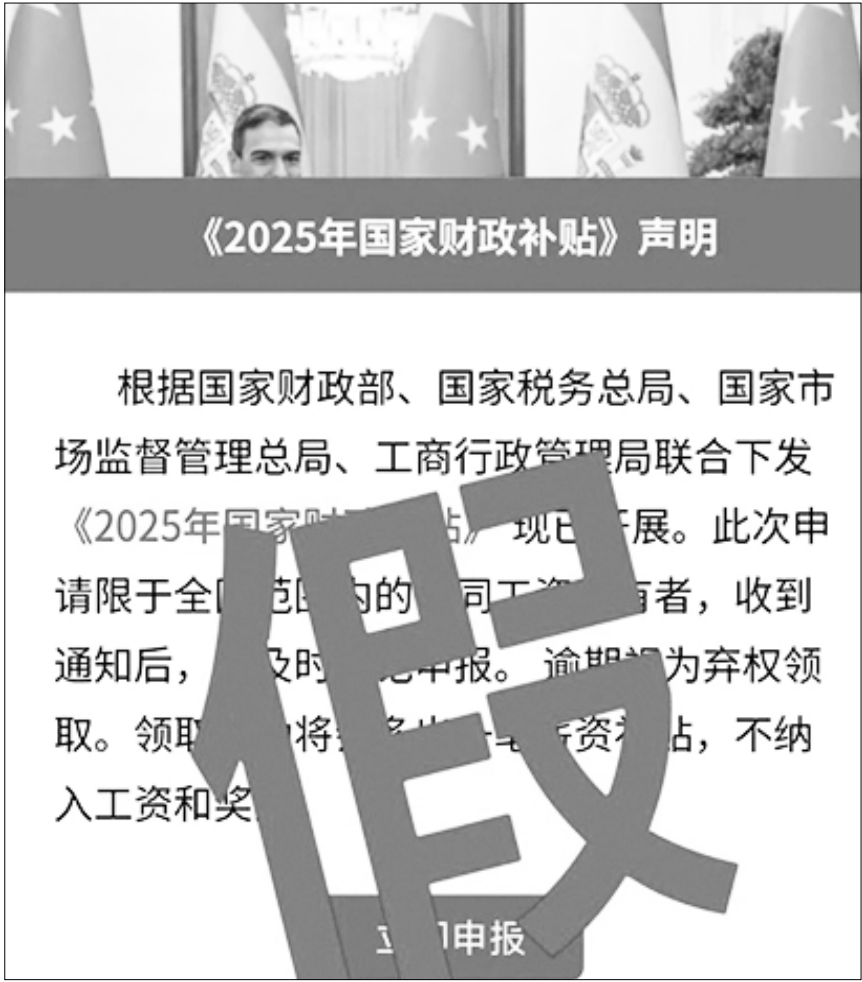
실종된 6 세 아이 56 분 만에 찾아줘



4월 3일, 화룡시에서 감동적인 구조작전이 펼쳐졌다. 당일 12시 46분, 화룡시공안국은 시민 마모의 6살 난 아이가 실원하 부근에서 놀다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긴급 신고를 받았다. 공안국은 즉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효율적인 련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56분 만에 아이를 무사히 찾아냈다. 경찰은 신고자 마모의 정서를 위로하는 한편 실종 아이의 체격 특징과 실종 위치 등 핵심 정보를 신속히 확보했다. 화룡시공안국 정보지휘센터(情指中心)는 즉시 인원실종 비상예비안을 가동하고 경찰력을 조직하여 전방위 수색을 전개했다. 경찰들은 한편으로는 실종된 장소 주변의 상점과 주거지역을 조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마을 한 경찰’, 민병 및 사회구역 주민 등 사회적 힘 동원과 경찰 위챗그룹을 통해 실종 아이의 정보를 광범하게 확산시켰다.

13시 20분경, 외환도로(外环路) 립근에서 실종 아이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즉시 주변 CCTV를 확인, 아이가 환성주우소 교차로에 나타난 뒤 한 골목길로 들어간 것을 포착했다. 지휘센터는 립근 순찰 경찰에 즉시 출동 지시를 내렸다. 결국 골목 깊은 곳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은 지 56분 만에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간식을 사주며 정서를 위로했고 조조해하던 부모에게도 인자 런락했다. 마모는 현장에 도착한 후 흥분된 마음으로 아이를 꼭 껴안으며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사업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화룡시공안국은 계속해서 긴급대응기제를 개선하고 안전방호망을 강화하여 시민들 마음속의 가장 안심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건기자

큐알코드 스캔하면 5 천원 보조금 수령 ? 신종 사기 주의



신종 사기극이 우리 주변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니 광범한 대중들은 속지 말기 바란다! 최근 한 네티즌이 안내문을 받았는데 해당 통지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웹사이트를 사칭하여 ‘국가 재정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지에 따라 급여보조금, 사회보장보조금, 의료보험보조금, 주택보조금, 교통보조금, 일자리보조금 등 신청 및 수령 인증에 대해 신청 통과 시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실제 알리페이로 스캔하면 가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해 개인 정보와 돈을 사취한다. 이것은 가짜다! 절대 믿지 말아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이러한 ‘급여보조금’이나 ‘2025년 국가재정보조금’을 발급한 적이 없으며 상술한 통지는 허위 정보로서 사기혐의가 있다. 절대 믿지 말고 클릭하지 말며 전제하지 말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꼭 틀어쥐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기의 일반적 수법은 허위 복지 정보를 조작하여 대중이 링크

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도록 유도하고 가져 ‘공식’ 웹사이트나 미니응용프로그램 등에 들어가 신분증, 은행카드, 비밀번호, 인증코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돈을 사취하는 것이다. 중요 알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부문에서 발표한 통지는 은행카드, 비밀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여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정보를 받게 되면 반드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낯선 웹사이트에서 신분증 번호, 은행카드 번호, 은행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작성하지 말며 더우기 그 안내에 따라 송금 등 작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부주의로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면 채팅기록, 거래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즉시 110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